<

1장. 말은 칼이다, 그러나

말은 칼이다.

그렇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다.

그 말은 사람을 다치게도 한다.

때로는 평생을 꿰뚫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칼은

언제나 사람을 해치는 도구일까?

칼로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

딱딱한 땅을 가르기도 한다.

막힌 걸 틔우고,

무거운 걸 덜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나간 자리다.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어떤 의도로 건네졌는지,

그 말은 그 사람의 결이 된다.

말은 칼일 수 있다.

그러나

말은 빛일 수도 있다.

길이 될 수도 있다.

말은 나다.

2장. 말은 고요한 파문이다

큰 소리로만 울리는 건 아니다.

말은 고요할수록 멀리 번진다.

물 위에 떨어진 조약돌처럼.

처음엔 작은 울림이었다.

내 안에서 시작된 떨림.

그 떨림이 입을 거쳐 세상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

작은 물결이 되어 스며들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 말이 파문이 되어 돌아온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된다.

그때 그 말이 누군가를 살렸구나.

혹은…

그때 그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렸구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 속으로 스며들고,

기억 속에 남아,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고요할수록 깊다.

작을수록 멀리 간다.

3장. 말은 쌓인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켜켜이 쌓여

사람이 된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무심히 내뱉은 말,

스쳐 지나간 한마디가

어딘가에 남아

시간을 타고 켜켜이 쌓인다.

그 말 위에 말이 더해지고,

그 기억 위에 또 기억이 얹히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때론

살이 되고,

때론

상처가 된다.

누구의 말이었는지는 잊혀도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은 가볍지 않다.

말은 남는다.

쌓인다.

깊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든다.

4장. 남은 말

상처는 아문다.

그러나 흔적은 남는다.

말도 그렇다.

언젠가 흘려보냈다고 생각한 말이

누군가에겐 깊은 자국이 되어 남아 있다.

그 자국은

누군가에겐 트라우마가 되고,

누군가에겐 극복의 서사가 된다.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힘이 된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말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지 않다.

그 말을 받아들인 마음이

그 의미를 만든다.

말은 남는다.

그리고 그 남은 말은

사람을 흔들고,

가끔은 일으켜 세운다.

5장.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

말은 씨앗이다.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밭 위에 떨어진다.

어떤 밭은 돌짝밭이다.

말이 닿기도 전에 튕겨 나간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어떤 밭은 가시밭이다.

말은 뿌리를 내리지만

곧 엉킨 감정에 찔리고, 찢기고, 시들어간다.

이해받지 못한 말이, 오해로 자라난다.

어떤 밭은 옥토다.

말은 그곳에 닿자마자 스며들고,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견디며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꽃이 되고, 열매가 된다.

말을 뿌리는 우리는

그 밭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뿌려야 한다.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살아 움직이게 될지도 모르기에.

말은 씨앗이다.

돌짝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찔리든,

옥토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말은 오늘도 자란다.

6장. 침묵은 말이다

‘침묵은 금이다.’

오래된 속담은 말한다.

말하지 않음이 말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

때로 침묵은

외면이 되고, 무시가 되고, 단절이 된다.

하지만 또 어떤 침묵은

존중이고, 기다림이고, 사랑이다.

때로는 가장 깊은 공감이 말이 아닌 침묵으로 온다.

말하지 않음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

차라리 화를 내달라는 말,

차라리 울어달라는 말은,

사실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다.

침묵은 말이 아니다?

아니다. 침묵은 말이다.

말의 반대가 아니라, 말의 또 다른 형식이다.

우리의 말이 너무 많을 때,

그 말들이 서로를 가릴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진짜 울림을 듣게 된다.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니라

채워진 여백이다.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는 힘.

그것이 침묵이다.

이 장, 스스로도 너무 좋다.

마음에 들면 다음은 말의 선택과 책임으로 넘어가자.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울림으로 남는가.

7장. 말은 떠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손을 벗어난다.

그래서 말은 위험하다.

그래서 말은 힘이 있다.

말은 나의 것이지만,

나의 의도를 벗어나

누군가의 마음에 박힐 수 있다.

말은 감정의 총알일 수 있고,

위로의 손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앞에서 신중해야 한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말하는 것도 선택이다.

문제는 그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상처를 남겼다면,

의도보다 결과가 앞선다.

말은

말하는 이의 것이자,

듣는 이의 것이며,

더 나아가 듣지 않은 이의 것이 되기도 한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를 하기 전에,

열 번을 되새김질해야 한다.

말은 떠난다.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

말을 선택한 나.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나.

책임이다.

8장. 여운, 머무는 말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 중으로 흩어진 말도

마음속에 잔류한다.

그것을 우리는 여운이라 부른다.

잔잔하게 남아 있는 그 말의 향기, 혹은 쓴맛.

문제는

그 여운이 숙성이 될지,

부패가 될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 한 마디가 자꾸 맴돌아.”

“그 말이 나를 살렸어.”

같은 말도,

어떤 이는 힘으로,

어떤 이는 흉터로 간직한다.

그러니 말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것이다.

시간 속에, 마음 속에.

그 가라앉은 말은 때로는

천천히 익어

어떤 날 갑자기

누군가의 삶을 일으킨다.

혹은 썩는다.

상처로, 원망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로 다시 올라온다.

말이 흩어지고,

시간이 흐른다 해도,

말은 떠난 자리에 여운으로 남는다.

그 여운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

9장. 말이 남긴 것, 혹은 말로는 다 못한 것에 대해.

여운은 향이다.

그러나 모든 향이 향기로운 건 아니다.

누군가에겐

그 말의 끝에 남은 잔향이

오래도록 위로가 된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겐

그 잔향은

악취로 번지고

잊고 싶은 순간의 재연이 된다.

말은 향처럼 스민다.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기억의 분자, 감정의 입자들.

그러니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피우는 것이다.

향처럼.

그 향이 위로가 될지,

공포가 될지,

이끌림이 될지,

도피가 될지는—

말한 이도 모른다.

10장. 말의 부재, 말의 시작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많은 말을 한다.

말을 멈춘다는 건

포기나 회피가 아니라,

그저 말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많은 말은

진심을 덮고,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말은

진심을 숨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없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무거운 침묵,

그 안에 깃든 말들.

어쩌면 말은

그 부재로 인해 더 선명해지고,

그 침묵 덕분에 더 깊어진다.

그러니,

모든 말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모든 말은 침묵을 딛고 일어난다.

11장. 말, 그리고 사람

말이란 결국 사람이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는지가 오래 남는다.

같은 위로라도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에 따라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드러낸다.

말은 생각의 흔적이지만,

그 생각의 깊이는 살아온 결로 깎여진다.

그래서 말은

훈련의 결과이자,

살아낸 날들의 궤적이다.

말을 가볍게 흘리지 마라.

말이 너를 대신해 기억될 수도 있으니.

말을 무겁게 짊어지지 마라.

말보다 너는 더 넓고, 더 깊으니.

그러니 결국,

말은 사람이요,

사람은 말에서 온다.

에필로그: 말, 끝내 말을 넘어서

말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멈춘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어서,

말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말을 멈추고 싶어지는 지점이 있다.

그때 우리는 안다.

말보다 앞선 것이 있었고,

말 너머에도 무엇인가 있다는 걸.

그것은 울림이다.

말이 스며들어 만들어낸 침묵의 울림.

설명보다, 지시보다, 명분보다 더 깊은 것.

우리는 그 울림으로

다시 삶을 짓고,

다시 사랑을 건네며,

다시 한 사람을 향해 말을 건넨다.

말은 끝났지만,

울림은 계속된다.

말은 멈췄지만,

너는 계속된다.